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래, 김기택(배숙자), 김병율(이영숙), 김우근(윤지성), 김경배(임승주), 김종진(한안나), 김춘화, 오영순, 유현호(이영미), 이상현, 이한철(박희영), 이형욱, 정은전, 조규영, 주성탁, 채희춘(황영옥), 최기훈(정계숙), 최성현(윤정자), 최성환, 황근욱(이경주), 황성연(홍금옥), 김점대(유은자), 맹지혜.(총23명)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래, 김경엽, 김기택(배숙자), 김병율(이영숙), 김순옥, 김태수, 박금영, 박복래, 손정아, 박순자, 윤영준(박진숙), 이상아, 이순애, 이춘휘, 이춘희, 임승주, 전병구(이민숙), 최기훈(정계숙), 현웅건(이윤옥) 김점대(유은자), 루디아여전도회.(총22명)

♣ **감사헌금**

이필래, 김병율(이영숙), 김순옥, 김준구(이소은), 김현구(서재희), 박금영, 박부웅(최귀남), 박순자, 박종삼(이명원), 방복순, 유은자, 윤 숙, 이상희, 이춘휘, 임승주, 전병구(이민숙), 정영섭, 최선미, 황영옥, 김아이라, 맹지혜, 무명2.(총24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이필래, 김민성, 김수현, 김정훈, 김준현, 김지훈, 김형숙, 김춘화, 민옥희, 박은숙, 박정숙, 박희영,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슬아, 이육남, 이육남, 이민숙, 이춘호, 정옥순, 주성탁, 최귀남, 최봉순, 최선미, 황영옥, 김민혁, 무명.(총39명)

♣ **월정헌금**

김태수, 류영철(김형숙).(총2명)

주간 성경연구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제48주: 잠언 24장 1-34절, 스바냐 1장 1절 - 3장 20절			
주 일	잠언 24장 1 - 22절		
월요일	잠언 24장 23 - 34절	목요일	스바냐 2장 4 - 15절
화요일	스바냐 1장 1 - 13절	금요일	스바냐 3장 1 - 8절
수요일	스바냐 1장 14절 - 2장 3절	토요일	스바냐 3장 9 - 20절

원로장로	이태일		
시무장로	정기성 윤조춘 방성태 윤병호 강영성 김병율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옥 장영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윤영원 이일로 천세택		
교역자	부목사	윤희진 김성종	
	전도사	이필래	
찬양대	교육전도사	문수경 이승이 최유경	
	반주자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시온·예덴 : 최원지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강민주 김미희 김상훈 유광희 이주하 정해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선교사	솔리스트 김안나 박선희 고광훈		
	파송선교사	태국: 김정숙 수리남: 안석렬 이성옥 미국: 김다니엘 미국: 최옥희	이집트: 김진숙 A X 국: 김혜숙 A X 국: 이분옥 A X 국: 박동권 김명화
		태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홍기	태국: 박정환 이순연 A M A: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성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성교회, 소망교도소, 영동포시활화 동정세계성교회, 서울남노회 G.M.S., 오픈도어선교회		

2015. 11. 22 주일 예배 설교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날 때

본문: 사도행전 27장 20-26절

설교: 이진우 목사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그 삶에 평안하고 기쁨이 있으며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내 인생의 길은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에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에 또 다시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견디며 마침내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또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선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도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 나갔는가를 살펴보고 고난이 올 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바울이 겪은 유라굴로

바울은 복음을 증거 하다가 체포되어 이달리아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미항을 출항하면 큰 풍랑을 만난다고 백부장 율리오에게 말 합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배를 출항시켜 결국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만일 선장과 선주가 사도 바울의 권언을 귀담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유라굴로”의 풍랑을 분명히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유라굴로”의 풍랑이 일어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강하게 휘몰아침으로 고통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슬픔도 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여 삶의 질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참으로 자성적이며,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다가와 휘몰아치는 이 유라굴로의 풍랑을 눈앞에 두고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 유라굴로의 시작

사실 인생에 주어진 이 “유라굴로”는 참으로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던 그 때부터 인생의 “유라굴로”는 시작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악숙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우리내 인생 가운데는 죄악의 유라굴로, 질령의 유라굴로, 사망의 유라굴로, 저주의 유라굴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인류는 “유라굴로”의 풍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과 욕심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교만과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관하여 일일이 따져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함을 얻으며 살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크고 작은 “유라굴로”의 풍랑을 만나 고난과 걱정, 슬픔과 낙심 그리고 결국에 그 인생이 파탄에 이를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교만과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 바로 아는 것입니다.

3. 유라굴로를 극복한 바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분명한 소속감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마음이 있었습니 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말씀 위에 “유라굴로”를 능히 정복하고 그와 함께 탄 사람들도 구출하여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특별히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당대하게 했던 것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유라굴로”를 이기는 방법은 말씀 가운데 바로서서 그 은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만날 뿐 아니라 그를 믿고 믿음의 반석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참 된 은혜를 경험할 뿐 아니라 인생의 “유라굴로”를 이길 수 있고, 그 폭풍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며 견디며 마침내 영광의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되시는 예수를 만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교만을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내가 선택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교만하여 욕심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내 부모도, 가정도, 형편도, 환경도, 자녀도, 내 몸도, 내 삶도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교만과 욕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교만하고 욕심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의 교만했던 모든 것과 잘못된 욕심을 버리고 참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를 만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만을 회개하고 탄복을 버리며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 인생의 “유라굴로”의 풍랑을 잠잠케 하며 더 은혜와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1 - 48

2015. 11. 29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시편 80편 7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에배

(1부) 오전 7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2부) 오전 10시					
(3부) 오전 11시 30분					
목	도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185장		다	갈 이
(Praise)					
이 기쁜 소식을					
통	성	기	도	다	갈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방 원 식 집 사	
(Prayer)				(3부) 최 기 훈 장 로	
성	경	봉	독	고린도후서 13장 5절 [산악 P.301]	김 순 화 권 사
(Scripture)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 200장]	다	갈 이
(Anthem)					
[2부] 오 주여, 말씀하소서 [S. Townend]				에	덴 찬 양 대
[3부]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홍지열]				할	렐루야찬양대
설	교	당신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1,3부]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다	갈 이
(Praise)					
[2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에	배	후	찬	양	다 갈 이
(Marching on Praise)					
[1부]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이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임 만 순 장 로	
목	도	할렐루야찬양대	
성	시	시편 68편 35절	사 회 자
간	구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 갈 이
기	도	최 성 현 집 사	
성 경 봉 독	잠언 16장 16-23절	[구약 p.929]	사 회 자
찬	양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패역한 입술과 면류관	이 진 우 목 사
광	고	담 임 목 사	
찬	양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다 갈 이
축	도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강사: 서 용 봉 목 사
-----------	---------------

제43회 부흥성회

장자의 명분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3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0:00 본당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9:30 유초등부실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00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6:00 로렘나무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소 랑 부 (영도대학)	토요일 오전 10:30 제1교육관
새벽기도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전도특공대	목요일 오후 2:00 식당

교회소식

○ 광고

- [제43회 부흥성회]
내일(30일)부터 “제43회 부흥성회”를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제: “**장자의 명분**”(창 25:27-34) 강사: 서용봉 목사(상록중앙교회)
일시: 2015년 11월 30일(월)~12월 2일(수) 새벽 5시 / 오전 10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하반기 총동원주일 결과]
하반기 총동원주일을 위해 수고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영혼구원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청대상자 41명이 함께 예배하셨습니다.)
- [금요기도회]
이번 주(12/4일) 금요기도회는 “총성1초원” 주관입니다.
- [회계 감사]
오늘(29일)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 교육부서, 남·여전도회 회계는 회계장부, 통장, 영수증을 지참하여 오후2시까지 당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남전도회 총회]
오늘(29일) 3부예배 후 본당에서 “남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남전도회회원님들은 필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수집사회 총회]
다음 주일(12/6일) 3부예배 후 로렘나무에서 “2016년 준비를 위한 안수집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은 필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여성경학교]
일시: 12월 12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2시 장소: 로렘나무
대상: 초등 1-5학년 / 교육비: 무료(교재비만 본인부담) / 문의: 문수경전도사
* 2차 설명회: 12월 5일(토) 오후 2시 / * 3차 설명회: 12월 6일(주일) 3부 예배 후
- [교회 김장]
24일(화), 25일(수) 양일 간 교회 김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권사회, 여전도회, 봉사부 및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2016년 성단 • 차 • 종식절대 신행]
2016년도 성단 • 차 • 종식절대를 사랑으로 성결 분들은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는 신청서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등부 예배]
중고등부가 다음 주일(12/6일)부터 오전 9시 30분에 로렘나무에서 예배합니다. 2부 예배는 변동 없이 10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남전도회 총회(3부 예배 후/본당) * 회계 감사(오후 2시/당회실)	* 안수집사회 총회(3부 예배 후/로렘나무) * 영여성경학교 설명회(3부 예배 후/본당)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오전식사	주말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김윤하 어린이	심혜현 청년	최기훈 장로, 정계숙 권사/윤병용 성도, 백남실 권사	이육남 권사	사랑2 개봉2 개봉3	바울 남전도회
다음주	이선미 청년	심 찬 청년	전순봉 권사/채희춘 성도, 황영욱 권사	김영숙 권사	사랑2 개봉4 고척4	요한 남전도회

○ 담임목사 동정

* 12월 5일(토) 새로남교회 임직예배 참석

○ 교우소식

- * 김길자 사모 고대구로병원 7274호 임원치료증
- * 최순혁 성도, 남수정 권찰(개봉1 신도일) 11월 23일(월) 득남

11월	순 서		1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 회	기 도	기 도	
1주(1일)	박종삼 집사	방석태 장로	이육남 권사	윤영준 집사	장윤주 집사	유은자 권사				
2주(8일)	김형국 집사	윤병호 장로	김영숙 권사	최기훈 장로	최상길 집사	양영욱 권사				
3주(15일)	황성연 집사	강영성 장로	이민숙 권사	추수감사주일 찬양축제		이경자 권사				
4주(22일)	오백현 집사	김병을 장로	이춘휘 권사	배경철 장로	장윤주 집사	최효자 권사				
5주(29일)	방원식 집사	최기훈 장로	김순화 권사	임만순 장로	최성현 집사	배경철 장로				
예배안내	정기성	윤조운	방석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